



성낙욱 의장



최정웅 부의장



이분희 위원장



강지백 위원장



김진복 위원장



강도희 위원장



최인희 위원장

의장 성낙욱, 부의장 최정웅 의원 선출

제10대 부산진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 상임위원회 확정

의회운영위원장 이분희

행정문화위원장 강지백

안전복지위원장 김진복

예결특별위원장 강도희

윤리특별위원장 최인희

부산진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부산진구의회는 7월 2일 제35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10대 의회의 첫 회기로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의장단 선거에서는 성낙욱 의원이 의장으로, 최정웅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이분희 의원, 행정문화위원장에 강지백 의원, 안전복지위원장에 김진복 의원이 각각 선출됐

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강도희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최인희 의원이 선임돼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다.

성낙욱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장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원 모두와 함께 협력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정웅 부의장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의장단 구성을 계기로 구민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제10대 전반기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7) – 이분희(위원장), 이지영(부위원장), 조수성 의원, 김정에 의원, 김민경 의원, 오용성 의원, 최정웅 의원

■ 행정문화위원회(9) – 강지백(위원장), 조수성(부위원장), 고은지 의원, 오용성 의원, 이분희 의원, 이지영 의원, 유제필 의원, 최정웅 의원, 안수만 의원

■ 안전복지위원회(9) – 김진복(위원장), 김정에(부위원장), 김민경 의원, 최인희 의원, 이도경 의원, 김철현 의원, 오우택 의원, 강도희 의원, 손재호 의원

■ 예산결산위원회(9) – 강도희(위원장), 고은지(부위원장), 이도경 의원, 최인희 의원, 이분희 의원, 김철현 의원, 김진복 의원, 손재호 의원, 김민경 의원

■ 윤리특별위원회(7) – 최인희(위원장), 이도경(부위원장), 고은지 의원, 강지백 의원, 조수성 의원, 강도희 의원, 안수만 의원

성낙욱 의장 개원사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귀한 결심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역대 의장님 여러분! 그리고 부산진구 발전의 길을 함께 걸어갈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과 뜨거운 신임을 받아, 부산진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제10대 부산진구의회 개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구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의를 대변하는 무거운 책무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이 자리에 서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동지로서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큰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걸음의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저는 제10대 부산진구의회가 구민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세 가지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구민의 삶을 채워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미덕이라는 것을 새기고,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경청의 의회가 되겠습니다. 화려한 수사(修辭)에 갇힌 정치가 아니라, 구민의 최일선에서 구민이 마주하는 결핍을 채우고 책임 있게 응답하는 민생 중심의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하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으로 협치와 상생의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당리당락을 넘어 오직 ‘구민의 행복’이라는 절대적 가치 아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창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구정을 견인하는 ‘생생적인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혜안(慧眼)’의 의회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우리 부산진구의 10년, 20년 뒤의 미래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부족, 복지 수요 급증 등 다가오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입안하는 전문성 높은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Parliament)의 어원은 ‘말하는 곳’이지만, 제10대 부산진구의회는 ‘듣고 실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문턱은 낮추고, 구민의 현장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권위는 내려놓고 책임은 더 무겁게 짊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른 의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늘 매서운 눈빛과 따뜻한 격려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을 이끄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부산진구라는 수레를 함께 이끄는 두 개의 바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망의 첫걸음을 내딛는 제10대 부산진구의회에 여정에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